



보도 일시	2022. 3. 31.(목) 15:00 (2022. 4. 1.(금) 조간)	배포 일시	2022. 3. 31.(목) 09:00
담당 부서	기초원천연구정책관 융합기술과	책임자	과 장 이주원 (044-202-4570)
		담당자	사무관 이차연 (044-202-4574)

## 과기정통부 융홍택 제1차관, 모빌리티기업 현장방문 - 모빌리티 기업의 기술혁신 계획 청취 및 연구개발지원방향 논의 -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임혜숙, 이하 과기정통부) 융홍택 제1차관은 3월 31일(목) 국내 모빌리티기업인 (주)서울로보틱스를 방문하여 연구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.
  -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로봇, 자율주행 등에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삼차원 라이다(LiDAR, Light detection and ranging)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임·직원 관계자들과 국내 모빌리티 분야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
  - 라이다는 사물의 크기, 위치, 속도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는 삼차원 카메라이며, 고도의 라이다 센서 기술은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4\* 이상으로 도약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    - \* 자율주행 레벨4 : 지정된 조건에서는 운전자 없이도 운전가능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
-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 융홍택 1차관은 (주)서울로보틱스의 라이다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
  - 간담회를 통해 얻은 의견들을 검토하여 향후 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 사업 기획에 반영하고, 국내 모빌리티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.
- 융홍택 제1차관은 “모빌리티 분야는 앞으로 기술패권시대에서 첨단기술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부의 핵심 사업”이라며, “앞으로 모빌리티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.” 고 밝혔다.

## □ 개 요

- (일시/장소) 3월 31일(목) 15:00~16:00 / (주)서울로보틱스\*

\* (주)서울로보틱스 : '17년에 설립된 라이다와 같은 삼차원 센서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

- (참석자) 과기정통부 융홍택 제1차관, 융합기술과장,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기술단장, (주)서울로보틱스 대표 및 임직원 등 총 10인 내외
- (주요내용) ①기업 소개 및 기술개발 현황 발표, ②기업 현장 연구자 간담회, ③모빌리티 분야 연구개발 지원방향 논의

## □ 세부일정(안)

시 간	소요(분)	내 용	장 소
15:00-15:05	'5	환담	서울로보틱스 본사 회의실
15:05-15:10	'35	차관 인사말씀	
15:10-15:25		기업 소개(서울로보틱스 대표)	
15:25-15:40		연구자 간담회	
15:40-15:45	'5	이동	
15:45-16:00	'15	주요장비 투어 - 라이다 소프트웨어 실시간 사람인지 솔루션 - 라이다 하드웨어 테스트 솔루션 -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 연구차량	서울로보틱스 본사 연구실